

폴란드 공산당 통치의 붕괴에 관한 고찰

김 용 호*

-<目 次>.....
- | | |
|-----------------|---------------------|
| I. 서 론 | V. 자유노조의 집권 |
| II. 이론적 논의 | VI. 경제 위기 |
| III. 폴란드의 정치문화 | VII. 고르바초프의 새 외교 정책 |
| IV. 폴란드 공산당의 변천 | VIII. 결 론 |

I. 서 론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에 대한 분석의 시각은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변혁의 본질과 장래에 대해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아 사회주의 강화라고 보는 견해와 사회주의로부터 이탈이라고 보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박호성, 1990; 장기표, 1990; 서울대학교 사회주의 연구 팀, 1990; Frank, 1990; Wallerstein, 1989). 이러한 견해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소련과 동구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폴란드 공산당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소련과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높히고자 한다.

폴란드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공산당(공식 명칭은 폴란드 통합노동자당인데 이 글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이 붕괴되고 비공산당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나라이다. 야루젤스키(Wojciech Jaruzelski)가 이끄는 폴란드 통합노동자당은 지난해 4월 노동자들의 파업을 주도하고 있던 자유노조와 협상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자유노조 합법화 (2) 의회 및 선거제도 변경 (3) 대통령직 신설 (4) 시장경제원리의 확대 실시를 위한 사기업 육성 (5)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보조금 철폐. 이에 따라 정원 100명의 상원을 신설하고 460석의 하원의석 중에서 161석을 자유 경선

* 서울대 강사

에 붙이도록 하였다. 6월의 총선 결과는 자유노조가 하원의 161석을 모두 차지하고 상원의 100석 중 99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자유노조의 압도적인 승리는 173석을 가진 통합노동자당의 지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종래 통합노동자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농민당(76석)과 민주당(27석), 그리고 무소속(23석)이 자유노조를 지지하고 나서자 통합노동자당은 내각구성에 실패하였다. 마침내 야루젤스키 대통령은 자유노조 출신의 마조비에츠키(Tadeusz Mazowiecki)에게 조각을 의뢰하였는데 그는 전통 끝에 자유노조 중심의 정부 수립에 성공함으로써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2차대전 이후 최초의 비공산 당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마조비에츠키 수상은 비록 인플레이션과 외채에 여전히 시달리면서도 시장경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노동자당 출신의 관료들을 정부에서 축출하라는 압력 속에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에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가격 자율화, 정부의 재정 보조금 3분의 2 축소, 즐로티화 31% 평가 절하, 임금동결, 국유재산의 사유화 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초긴축 재정안정정책과 함께 자본주의에 가까운 전면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한 경제개혁은 일시적으로 살인적인 물가 양등을 초래했으나 즐로티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환율의 현실화로 태환성이 높아져 대외 교역이 활성화되고, 상품값의 현실화로 상점 앞 줄서기가 사라졌다(한국일보, 1990년 2월 6일자). 지난 1월과 7월에 광산노동자들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각각 있었으나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지 않았다(한국일보 1990년 2월 6일자, 경향신문 1990년 5월 25일자). 그런데 최근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해 동구권 국가들이 심한 인플레와 실업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데 폴란드도 마찬가지다. 인플레율에 있어서 폴란드는 올해 약 50%정도로서 100%을 훨씬 넘어선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실업자의 수에 있어서 폴란드는 1백20여만으로 체코의 50만,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의 10여만에 비해 높은 편으로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조선일보, 1990년 10월 27일자).

한편 정치 분야의 경우 지난 1월에 통합노동자당이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바꾸고 새로운 강령을 제시하였다. 종래의 민주집중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및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선거와 의회민주주의, 다당제 및 “국가가 일정부분 개입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장경제를 지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한겨례 신문, 1990년 1월 30일자). 더욱이 새 당수에 약관 35세의 알렉산더 크바스니프스키를 선출하여 세대교체를 이루었다(조선일보, 1990년 1월 31일자). 이처럼 지난 41년간 폴란드를 통치해온 통합노동자당은 새로운 정치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 하원은 지난 9월에 야루제스키 현직 대통령의 6년 임기를 단축시키고 오는 11월 25일에 폴란드 사상 최초의 자유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자유노조를 이끌어 온 노동자출신의 레흐 바웬사가 현 마조비에츠키 정부의 점진적인 개혁에 반기를 들고 경제의 사유화와 통합노동자당 출신의 정부 관료들을 축출하여 개혁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명분하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한편 마조비에츠키 수상도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혔음에 따라 자유노조는 양대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다양한 정치세력들로 구성된 자유노조는 그동안 집권세력에 대한 투쟁에서 공동전선을 유지해왔으나 이제 권력을 장악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정치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 자유노조 지도자중 일부는 바웬사 노선에 반대하여 자유노조내의 극단주의로 인한 위험에 반대하고 마조비에츠키 정부의 점진적 개혁을 지지하는 새로운 정당 “시민운동—민주행동”을 결성하였다(한겨례신문, 1990년 7월 8일자). 이 정당의 결성대회에 연대노조 출신 정치인과 의원 60여명이 참석하여 바웬사의 야심과 독단을 비난하였다. 이처럼 자유노조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폴란드의 기성과 신인 정치인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노선에 따라 새로운 정당들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 폴란드에 어떤 유형의 정당정치가 출현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우선 통합노동자당 통치시기의 정당체의 본질과 이러한 정당체가 붕괴된 원인을 살펴 보자.

Ⅱ. 이론적 논의

폴란드 정당체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일당체와 구별되는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 사토리는 폴란드 통합노동자당의 통치체제를 이데올로기 지향의 패권정당체라고 설명하고 있다(Sartori, 1976: 231). 패권정당체는 본질적으로 비경쟁적이지만 야당이 존재하여 복수 정당의 형태만 갖춘 것으로 야

당은 제도나 운영상 집권당에 대해 정치적 도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폴란드의 경우 집권당인 통합노동자당 외에 농민당, 민주당, 그리고 카톨릭 출신의 무소속이 의회에서 의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합노동자당의 폐권적 지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야당을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와 조직들은 집권당이 주도하는 국민통일전선(the Front of National Unity)에 소속되어 통제를 받았다(Allardt and Wesolowski, 1978:79). 예를 들면 통일전선이 각당과 단체에서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정해 주었다. 이러한 비 경쟁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사회단체들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에 상당한 수의 공직을 차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물론 공산당이 중앙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비공산당이 지방정부를 통치하였다. 비록 여러가지 정치적 제약이 있었으나 야당의 존재와 공산당의 중앙정부/비공산당의 지방정부라는 2원적 구조는 폴란드의 민주화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폴란드 공산당이 폐권적 지위를 상실한 원인은 무엇인가? 기존의 연구자들은 여러가지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요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폴란드 통합노동자당의 붕괴 원인으로 고르바초프의 대동구 탈위성화정책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너무 단순하여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왜냐하면 일부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은 소련의 위성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당명 체택과 함께 변신을 통해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고르바초프의 폐레스트로이카 정책이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 공산당의 변화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지만 동구 공산당들은 서로 다른 대응으로 인해 권력을 유지한 경우도 있고, 실권한 경우도 있다.

폴란드의 정치적 변화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변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폴란드의 장래를 전망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폴란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일찍 개혁을 시도하였고, 개혁이 집권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출발하였다. 개혁의 시차는 주로 그 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고, 개혁 원천의 차이는 주로 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폴란드와 평가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일찍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이 점

〈표 1〉 개혁의 시차와 원천

	경제적 위기의 심각성		
	강	약	
공산당 통치 에 대한 국민 의 지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선발/위로부터 (헝가리) 선발/아래로부터 (폴란드)	후발/위로부터 (불가리아) 후발/아래부터 (동독, 체코, 루마니아)

출처 : Renee de Nevers,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The End of an Era," *Adelphi Papers*, No. p.29, Table 2: The Timing and Origins of Reform를 약간 수정.

은 양국의 경제적 위기의 정도가 다른 동구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였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폴란드는 390억불이라는 엄청난 외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외채는 동구에서 2번째로 외채가 많은 헝가리의 200억불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이다(de Nevers, 1990: 11). 한편 헝가리는 국민 1인당 외채액이 가장 많은 나라로서 1985년에는 동구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저조하였다(de Nevers, 1990:29). 그런데 폴란드는 개혁을 비교적 일찍 시작했다는 점에서 헝가리와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는 개혁의 압력이 아래로부터, 후자는 개혁이 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들 나라에서 공산당의 지배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가, 또는 공산당의 지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에 달려 있었다. 폴란드는 1980년대 초반에 자유노조 운동을 통해 통합노동자당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 조직적으로 일어났고 이에 대한 당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군부의 개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소요를 진압하였다. 한편 헝가리에서는 공산당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세력은 당시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당을 개혁의 중심으로 삼아 권력을 유지해 보려고 했으나 개혁이 시작된 후 반대세력들의 요구가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동구 각국의 변화 양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국의 정치적 장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들이 가진 고유한 정치경제적 요인과 정치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폴란드 통합노동자당이 실권한 원인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 보자. 첫째, 폴란드의 공산당 통치가 붕괴된 근본 원인은 스탈린 경제체제로서 지난 40여년간 통제경제 하에서 경제

위기가 빈번하였는데 근원적인 측방이 아닌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본다(Fallenbuchl, 1982; Gebethner, 1990). 경제활동에 있어서 관료주의적 통제와 관리는 비효율적이어서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담보상태에 두게 하였다. 더욱이 과학 기술의 개발이 미약하여 서구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농업에 있어서 집단 농장화는 생산성 저하를 가져 왔다. 그리고 1970년대의 무분별한 외국자본 도입과 투자 결정의 오류는 생산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지 못해 외환수지의 악화를 가져와 외채 상환에 압박을 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노동자들은 1980년에 자유노조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때 이미 폴란드 통합노동자당은 정치적 통제력을 크게 상실하였다. 결국 1981년 폴란드 군부의 개입에 의한 계엄령 선포로 공산당의 실권을 방지했으나 폴란드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했다. 1988년 자유노조가 재차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자 야루겔스키가 이끄는 폴란드 군부정권도 더 이상 힘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해져 자유노조와 협상을 통해 제한된 정치적 양보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썼으나 선거에서 완전 패배함으로써 통합노동자당은 이제까지의 패권적 지위를 잃게 되었다.

둘째, 폴란드 공산당 통치의 붕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위기, 고르바초프의 새 외교정책, 자유노조의 등장 등은 상황적 요인도 불과하고 근원적 요인은 폴란드 고유의 정치문화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Brzezinski, 1989; Lewis, 1983). 이들은 2차 대전 직후 소련 군정하에서 폴란드 공산당의 집권은 비정상적으로 국민의 지지보다 군정당국의 강압에 의한 산물이었다고 주장한다. 폴란드의 정치문화를 보면, 반슬라브주의가 강하여 러시아인에 대한 불신이 깊고 오랜 카톨릭 전통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당의 통치가 정통성을 수립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들은 본다. 폴란드 국민들의 90%가 카톨릭으로서 폴란드 동쪽에 위치한 正教를 믿는 러시아인들과 폴란드 서쪽의 독일인들이 믿는 신교에 대비되는 종교에 기반을 둔 폴란드 민족주의의 전통은 외세에 의존하는 폴란드 공산당 정권에 대해 빈번히 저항해 왔다는 것이다. 1956년, 1970년, 1976년, 1980년의 노동자 봉기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요구를 내세웠으나 이면에는 소련의 위성 정당인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40여년간 소련의 군사적, 경제적 지배로 인해 폴란드 국민들은 자발적, 적

극적 지지없이 공산당 권력에 복종하였으나 소련의 대폴란드 정책이 독자노선 허용으로 바뀌고 자유노조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여 공산당 통치의 대안이 생겨 남으로써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한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폴란드의 장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높히기 위해 폴란드의 정치문화, 폴란드 공산당의 변화, 자유노조의 집권과정, 폴란드 경제의 문제점, 그리고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의 소련의 대폴란드 정책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I. 폴란드의 정치문화

폴란드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국토가 분할(1772년, 1793년, 1795년, 1939년)되고 100여년에 걸친 국가 상실로 인해 강한 저항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폴란드의 민족의식은 종교적인 요소에 바탕을 두고 있다. 폴란드인들은 자신을 예수의 민족으로 인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인간의 구원을 찾아 준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인들은 지난 1천년 동안 기독교를 믿으면서 자신들을 라틴계통의 서양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폴란드인은 카톨릭이기 때문에 프러시아인들의 신교와 러시아인들의 正教와 구별된다. 이처럼 폴란드는 카톨릭 종교가 없었더라면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존경은 공산통치하에서도 매우 강하여 정치적 위기때마다 교회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지난 40여년간 공산당은 평등과 사회정의를 사회주의의 목표로 내세워왔으나 많은 폴란드인들이 아직도 이러한 목표는 카톨릭교회가 추구해온 가치라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정의의 실현이 공산주의보다 카톨릭을 믿음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폴란드는 독특한 내용의 자유주의 전통이 있다. 16세기 귀족공화국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귀족에 한정되었지만 국가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편으로 의회에서 개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교착상태가 생겨났다. 단 한 사람의 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폴란드 의회인 “세 임(Sejm)”에서 법률 통과가 불가능하였다. 1918년부터 1939년까지 계속된 제 2 공화국이 농민당과 사회주의당, 민족민주당의 연립정부를 존속시키지 못한 것도 거부권 보장의 정치문화때문이었다.

정치적 교착상태는 1926년 필수드스키(Jozef Pilsudski)의 군사쿠데타로 독재 정권의 등장을 가져와 1930년대까지 집권하였다.

폴란드는 오랫동안 외세의 통치에 시달려 국가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외세가 세운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은 2차대전 이후 소련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많은 폴란드인들은 소련이라는 외세가 폴란드를 지배하기 위하여 공산주의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폴란드에서는 조국에 대한 애국이 반국가적인 행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더욱이 폴란드 정치인들은 아직도 조국, 애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국민들도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폴란드의 정치문화는 공산당 통치 하에서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엘리트와 대중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IV. 폴란드 공산당의 변천

폴란드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은 사회당 일부와 연계된 급진 폴란드 리투아니아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1920년에 창설되었다. 폴란드 공산당은 로자 루솀부르크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회민주당의 전통을 간직하여왔으며 30년대에는 스탈린에 의해 추방된 트로츠키 노선에 동조함으로써 소련공산당과 같은 등을 빗었다. 스탈린은 폴란드 공산당에게 코민테른의 지시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곧 이어 폴란드의 군사쿠데타로 인해 공산당이 불법집단이 되어 당지도자들이 투옥되고 모스크바에 망명한 사람들은 체포되어 스탈린에 의해 처형되었다. 1938년 공산당이 해체되었을 때 지도급간부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1939년 독—소 협정에 의해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의 분할점령 하에 들어가자 시코르스키(Wladyslaw Sikorski) 장군은 런던에 망명정부를 세웠다. 그가 1943년에 사망하여 미코라이치크(Stanislaw Mikolajczyk)가 수상에 취임하였으나(농민당 지도자—2차대전 전 가장 지지가 많았던 당—완벽한 토지 재분배 표방) 소련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사임하였다. 한편 1941년 독일이 독—소 협정을 파기하고 소련에 침공하여 폴란드가 전쟁터가 되었으나 소련이 1944년 중반에 이미 많은 지역을 나치로부터 해방시키고 점령하였다. 따라서 소련은 폴란드의 전후 국경선과 정권수립 과정에 소련의 이익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소련은 소—폴 국경을 Curzonline으로 고집하면서 1944년에는 런던 망명정부와 별도의 바르샤바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바르샤바 임시정부는 루브린(Lublin)이 영도하는 폴란드 노동자당을 중심으로한 민족해방위원회(the Polish Committee of National Liberation)가 주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노동자당 이외에 사회주의자, 좌파 인민당(Left Populists), 민주당, 폴란드 애국동맹(Polish Patriots Union)과 비정당인들도 참여하였다.

전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얈타회담이 끝난 후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에 어떻게 폴란드 정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여기서 소련은 루브린이 이끄는 바르샤바 망명정부를 지지하고, 한편 미국과 영국은 런던의 미코라이치크 망명정부를 지지하여 의견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미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는 소련 당국은 1945년 7월에 루브린이 주도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고 미코라이치크를 부수상에 임명하였으나 이 정부의 3분의 2가 루브린파에 속하였다. 이에 농민당과 기독교민주주의 신봉자 등이 반대세력을 형성하였으나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소련 점령당국은 1947년 1월에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폴란드 노동자당, 사회당, 농민당, 민주당이 4당 연합으로 집권하였다.

그런데 폴란드 최대정당으로 등장한 노동자당은 폴란드의 특수 상황을 강조하는 고물카파와 스탈린주의를 추종하는 비어루트(Boleslaw Bierut)파로 나누어져 있었다. 전자는 폴란드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카톨릭 교회와 유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농민들의 오랜 회망인 농지개혁을 주장하였다. 한편 후자는 스탈린식 경제체제수립을 위해 집단농장화를 주장하였다. 1948년 코민포름회의에서 고물카가 농장의 강제집단화에 반대하자 스탈린은 고물카를 당시기장에서 해임하고 비어루트를 임명함과 동시에 고물카를 연금시켰다. 이어 비어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새 헌법을 채택하여 새 정부를 출범시키자 반체제 정치인들이 대거 망명하였다. 한편 1948년 12월에 노동자당은 사회당과 합당하여 폴란드 통합노동자당으로 발전하였다.

1948년이래 폴란드는 스탈린주의에 입각하여 중화학공업 육성을 우선시키고 국민생활 향상과 복지에 소홀하였다. 이와 함께 고물카 추종자들은 중형을 선고 받았고 교회도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소련은 폴란드를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해 폴란드 군부를 완전 장악하였다. 1949년에 폴란드군부에 대한 대규모 속청이 있은 후 소련 장교들이 1956년까지 폴란드 군사정책의 중요 기능을 직접 맡아 수행하였다. 소련군 원수 로코소프스키는 폴란드의 국방 문제에 직접 간섭하였다(서병훈, 1989:25).

폴란드의 스탈린주의는 다른 동구 국가에 비해 비교적 온건한 것이었으나 소련의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있은 후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1956년 형가리 사태가 있은 후 폴란드에서도 포스난(Poznan) 지역에 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이 파업은 표면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과다한 작업량, 불리한 임금조건, 빈약한 생활 수준에 대한 항의였으나, 당시 도부는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강압적인 방법으로 소요를 진압하였다. 소요가 진압되었으나 국민과 당내부에서는 내정의 자유화와 폴란드식 사회주의 노선으로 복귀하라는 요구가 팽배해졌다. 그동안 수세에 있던 고물카파가 오찰 당서기장에 압력을 가하여 고물카를 복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고물카 정부는 범치주의를 채택하는 등 여러가지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고물카 정부는 폴란드에 적합한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하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소련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하였다. 1970년 정부의 가격인상조치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봉기로 고물카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 기에렉이 당서기장에 임명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기에렉 정권은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국민의 지지를 강화하지 못했다. 그리고 폴란드 노동자당은 1960년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으나 질적인 면에서 쇠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폴란드 노동자당의 당원은 1960년의 110만명에서 1975년에는 240만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당의 위성정당으로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농민당의 경우에도 당원이 1960년의 25만에서 42만으로 증가하였다. 또 하나의 위성정당으로 도시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민주당도 당원이 1960년의 4만에서 9만으로 증가하였다(Allardt and Wesolowski, 1978:78). 이를 3당의 당원증가는 인구증가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각국의 노동자당이 대부분 겪고 있는 것처럼 폴란드 노동자당도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당이 되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화이트칼라 계층에 속하는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을 포함시켜야 하는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 통합노동자당은 전후

에 새로 노동자의 지위를 획득한 2세대 노동자 계층으로부터의 지지가 매우 빈약하였다. 지난 20년간 산업노동자들의 수가 대폭 증가하여 거의 2배에 달하게 되어 1970년대 말에는 1천 2백만 경제인구중 3분의 2가 산업노동자였다(Gitelman, 1988:428). 그리고 산업노동자중에서 2~30대의 젊은층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종래 농업에서 전향한 1대 노동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노동자 의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당은 이러한 층들을 흡수하지 못하였고 당내에는 화이트 칼라와 노년층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975년의 경우 전체 노동자중에서 13%만이 노동자당에 참여한 반면, 전체 전문직 종사자의 35%가 노동자당에 참여하고 있었다(Allardt and Weslowski, 1978:79). 그리고 전체 노동자당의 당원중 20.4%가 20대인데 반해 22.6%가 50대 이상이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폴란드 공산당은 1980년대에 당원들 중에서 노동자 출신과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1970년대 후반에 기에렉정부의 경제정책이 문제점을 드러내자 노동자들을 포함한 폴란드 국민들의 노동자당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결과이다. 1980~1981년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폴란드의 주요 국가기구, 정당, 사회단체 중에서 통합노동자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불신을 받았다(Gitelman, 1988:426). 폴란드 공산당이 모든 공장과 기업에 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엘리트와 대중을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당간

<표 2> 폴란드 통합노동자당(공산당)의 당원, 1960~1987

연도	당원수 (천명)	부문별 구성비(%)			연령별 분포(%)			교육(%)	
		여자	노동자	지식인	18~29	30~49	50세 이상	대학	고졸
1960	1,155	15.3	40.3	42.9	26.0	52.5	21.5	5.3	19.3
1970	2,320	22.5	40.3	42.3	25.3	56.5	18.2	7.9	27.0
1978	2,930	26.2	45.7	35.8	23.5	53.1	23.4	12.0	32.5
1980	3,092	26.8	46.1	32.5	24.8	—	—	12.0	32.4
1981	2,691	—	—	—	—	—	—	—	—
1982	2,327	26.8	40.2	49.0	11.1	57.1	31.8	15.8	35.9
1983	2,186	—	—	—	—	—	—	—	—
1984	2,117	26.9	38.5	51.0	7.6	57.4	35.0	17.4	36.7
1985	2,115	—	—	—	—	—	—	—	—
1986	2,129	27.2	38.0	51.7	6.9	56.8	36.3	18.3	37.2
1987	2,149	—	38.0	—	—	—	—	—	—

출처 : George Kolankiewicz and Paul G. Lewis, *Poland: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London: Printer Publishers, 1988), p.69, p.166.

부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남용하여 부패와 독적이 만연하였다. 예를 들면 1981년 5월 정부는 4명의 전직 장관, 7명의 전직 차관, 7명의 전직 지방당과 지방 정부 관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발표하였다(Gitelman, 1988: 432).

V. 자유노조의 집권

1980년 노동자와 반체제 지식인들이 조직한 자유노조는 폴란드 공산당의 통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처음에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출발한 자유노조운동은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여 정부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으나 끈질긴 지하운동 끝에 1989년에 정부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어 자유노조는 정치적 역할을 맡아 선거에 참여하여 승리함으로써 자유노조 중심의 내각을 구성하는 대변력을 성공시켰다. 이제 자유노조가 무혈혁명으로 폴란드 공산당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살펴보자.

1980년 자유노조의 등장은 폴란드 노동자들이 오래 전부터 시도해온 공산당에 소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려는 시험착오의 소산이다. 1956년 공산당에 실망한 노동자들은 자연발생적으로 노동자위원회(Workers' Council)를 만들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봉기로 새로 집권한 고물카 정부는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편으로 노동자자영회(the Conference of Workers' Self-Management, KSR)를 만들어 노동자위원회를 비롯한 관제노조, 당, 기술자 단체, 청년단체를 포함시켜 버렸다. 결국 노동자위원회는 당의 통제 하에 있는 노동자자영회내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1970년에 다시 노동자들의 봉기로 고물카가 물러나고 새로운 희망 속에 기에텍정부가 들어섰으나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1976년에 노동자들이 정부의 가격인상조치에 반발하여 봉기하자 많은 반체제 지식인들이 동조하였다. 대표적인 단체가 노동자보호위원회(Workers' Defense Committee, KOR)로서 정부당국에 구금된 노동자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도와주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는 전 바르샤바대학 교수인 쿠론(Jacek Kuron)으로 이미 1964년에 “당에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폴란드 사회의 관료화 현상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였다(Conner, 1980:9). 1977년에 노동자보호위원회는 인권운동을 벌이면서 사회보호위원회(the Committee for Social

Defense, KSS-KOR)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Robotnik)”라는 잡지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정부의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 7월 기에렉 정부가 식료품 가격을 인상하자 여러 공장지대의 노동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보호위원회와 사회보호위원회(KSS-KOR)는 폴란드의 각지역의 노동자들의 동태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8월에 바웬사(Lech Walesa)의 주도로 그단스크에서 공장간파업위원회(Inter-Factory Strike Committee, MKS)가 조직되어 21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요구조건중에는 일반적으로 노조들의 요구를 벗어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요한 것을 보면 표현의 자유, 종교단체의 매스미디어 이용 허용, 비밀경찰의 특권 폐지, 매스미디어의 파업 보도 허용, 파업위원회 구성 허용 등이었다. 폴란드의 주요 도시와 공장에서 공장간파업위원회가 조직되고 마침내 9월에는 전국협의체가 만들어져 “연대노조(Solidarity)”라는 명칭을 정하였다.

연대노조는 정관을 만들고 법원의 허가를 얻었는데, 정관에는 연대노조가 정치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며 통합노동자당이 국가 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연대노조가 정치적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을 천명했으나 연대노조에 참여한 수가 1천만(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고 통합노동자당원의 3분의 1이 연대노조에 참여함으로서 통합노동자당은 연대노조를 크게 경계하였다(Gitelman, 1988:435). 그러나 기에렉의 뒤를 이어 당서기장이 된 카니아(Stanislaw Kania)는 연대노조를 통제 할 정치적 수단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였다. 통합노동자당은 내부 갈등과 리더쉽 부재, 그리고 당원의 대량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더욱이 폴란드 정부는 반사회주의 세력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소련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Kuklinski, 1988:3).

마침내 1981년 12월 폴란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루젤스키 국방상이 서기장, 수상, 국방상, 3권을 장악하였다. 결국 당의 실패로 인한 권력 공백을 군부가 메꾸어 주었다. 생활 필수품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군인들이 전국에 배치되고, 군장성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폴란드 국민들은 군부가 아직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믿었다. 한편 그들은 연대노조를 공산당의 대치 세력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연대

노조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보는 것 같았다. 1982년 11월에 연대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노동자들의 동조를 얻지 못하였다. 이를 보고 계엄당국은 바웬사에 대한 연금을 풀었다. 이제 연대노조는 새로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밖에 없었다. 연대노조의 반체제 지식인들은 많은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고 저술 활동을 벌였다. 1988년에 들어 폴란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 시기에 연대노조 주도의 총파업은 야루젤스키 정부로 하여금 그동안 불법 단체인 연대노조와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서론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타협의 산물인 상원과 하원의 경선에서 자유노조는 대승리를 거두어 공산당의 권력 독점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에는 폴란드 경제위기와 소련의 정책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VII. 경제 위기

전후 폴란드의 경제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공산당통치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전후 소련이 이식한 스탈린식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아닌 부분적인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Fallenbuchl, 1982:3). 이러한 점은 전후 폴란드 경제의 전개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폴란드 경제는 전후 소련 점령하에서 계획경제의 도입과 함께 종전의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하였다. 경제정책면에서 중공업 부문, 특히 철강공업에 중점을 두면서 수입제한 정책과 생산재 부문 육성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소비재 부문의 성장이 낙후되어 생활 필수품의 부족 현상을 낳았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중앙집권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폴란드 경제에 적합한 모델을 오스카 랭게 (Oscar Lange)에 의하여 작성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으로 폴란드 경제는 일시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소비 등 실생활 수준의 향상이 저조하였고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1970년 고물가정권의 가격인상조치에 노동자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고

물카에 뒤이어 집권한 기에렉(Edward Gierek)은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대폭 도입하고 소비재 산업의 육성에 비중을 둔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 개혁은 1970년대 초반에 폴란드 경제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켜 개혁 이전의 기간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김황주, 1989:70). 그러나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외채상환의 압박과 함께 식량공급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이것은 그동안의 경제 정책이 농업부문을 무시하고 공업부문에 무분별하게 과잉투자한 데 원인이 있었다. 특히 서구의 기술과 설비에 의존한 방대한 공업정책으로 국제 수지면에서 수입이 증가하였고, 수입과 외채 상환을 위하여 수출을 촉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수출로 인한 국내시장의 공급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또 다시 수입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다. 결국 1970년대 후반에 폴란드 당국은 개혁정책을 취소하고 종전의 중앙집권적 체제로 환원하였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개혁의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가 너무나 심화되어 정부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까지 도달하였다. 생산성과 산출량은 급격히 하락하였고 과도한 외채로 더 이상의 차관이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식량공급의 부족은 더욱 심하여졌고 물가는 치솟아 1979년부터 폴란드 국민소득은 전후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1976년~1980년 사이의 경제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표 3〉 참조).

1980~1981년 사이에 카니아 정권이 들어서면서 폴란드 당국은 향후 5년 이내에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1981~1985년의 5개

〈표 3〉 폴란드의 경제

(1) 국민총생산 성장률

연 도	1971~75	1976~80	1981~85	1986	1987	1989
성 장 률	6.5%	0.7%	0.6%	2.8%	-2.5%	1.9%

(2) 연평균 투자증가율

(단위 : %)

연 도	1971~75	1976~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증 가 율	17.5	-3.0	-22.3	-12.1	9.4	11.4	5.7	3.7

출처 : (1) Richard F. Staar, "Poland: Renewal or Stagnation?" *Current History* (November, 1989), p. 375.

(2) 김황조, "폴란드의 경제構造와 經濟政策," 金達中 외 5인 공저, 『폴란드, 동독 : 政治, 經濟, 社會, 文化構造와 政策』(서울 : 法文社, 1989), 79, 81, 83, 92면.

년계획을 백지화시키면서 안정화정책을 펴나갔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혼란은 계속되어 1981년 12월에 급기야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새로 집권한 야루젤스키 정권하에서 폴란드 경제는 안정화정책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국민소득이 연평균 5%의 증가를 보였고 물가상승폭도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경제체제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요소를 줄이고 과감한 지방분권화를 실시하였다. 개별기업에게 가능한 한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의회인 Sejm의 권한도 강화하였다. 경제정책면에서도 변화를 보여 종전에 가장 경시되어 왔던 농업부문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어 농업을 보호하였고 대외무역에서는 수입억제와 수출촉진정책을 시행하여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결국 1983~1985년간의 안정화정책이 대부분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1980년대말에 폴란드 경제는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1988년 정부의 가격인상과 임금동결 조치는 약 1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Gwiazda, 1989:8). 라코프스키(Rakowski) 수상은 “자유, 평등, 경쟁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의 승인없이 사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1986년 이래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허용하던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고, 40년간 실시해 온 의회의 매입, 매각에 대한 통제를 없앴다(Staar, 1989: 376). 그러나 이와같은 국가의 경제적 통제를 완화하는 법적 조치들은 아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왜나하면 다른 부문의 경제적 활동이 여전히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든 사기업이든 외국투자자이든 폴란드 시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것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Gwiazda, 1989:3). 그리고 1989년 전반기에 폴란드 화폐를 8번 평가절하하였으나 여전히 공식환율과 암시세간에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Staar, 1989:376). 1989년에 정부의 재정적자가 약 1조 즐로티로서 정부 보조금이 적자의 주요 항목인데 우유와 유제품 생산에만 정부 보조금이 약 9천 억불의 현금부채, 다른 공산국가에 45억불, 그리고 서방 국가에 390억불이 되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1인당 수출액이 가장 적은 나라로서 새로 외채를 얻어오거나 상환연기조치 외에 별 방도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VII. 고르바초프의 새 외교정책

고르바초프가 취한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정책 변화는 이 지역의 대변혁에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고르바초프의 대폴란드 정책은 하루 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1985년에 집권한 이래 점진적으로 변하였다. 처음에 고르바초프는 소련 국내문제 해결에 몰두하여 대동구 관계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펼 수가 없었다. 비록 1986년에 페레스트로이카가 동구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적이 있으나 198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고르바초프는 동구의 개혁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동구의 개혁을 장려했으나 다른 나라들이 소련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1989년 중반에 소련은 동구체국이 개혁을 시도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르바초프의 정책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브레즈네프 사후의 권력 승계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브레즈네프의 사후에 등장한 안드로포프, 체르넨코와 달리 고르바초프는 당지도부의 세대 교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1986년의 제27차 당대회를 준비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그의 전임자가 추구한 대동구 정책을 계승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1985년 12월에 열린 CMEA 정상회담에서 COMECON 국가간의 협조를 강조하였다. 그는 소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래 동구국가들에게 주는 소련의 원자재들에 대한 가격을 재조정하고, 동구국가들이 의회를 벌어 들이기 위해 서구 시장에 파는 고급제품들을 소련에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2월에 개최된 제27차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대동구 정책에 대한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가 4월에 동독을 방문하여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이와 같은 개혁이 동구에도 필요 한지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그는 동구문제보다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미—소 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서간의 긴장완화에 몰두하였다. 6월에 열린 바르샤바 조약기구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유럽 군사력의 4분의 1을 감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가 7월에 폴란드를 방문하여 소련의 개혁이 소련—동구간의 안보동맹의 핵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한편 리가초프(Yegor Ligachev) 등 소련의 보수주의자들이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고르바초프는 1987년에 접어들어 개혁의 범위를 넓히고 속도를 빨리 하였다. 그는 1월에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당간부를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페레스트로이카의 혁명적 성격과 “민주화”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듬해에 당의 전체연방회의(All-Union Party Conference)를 개최하도록 정하였다.

고르바초프의 국내권력기반이 상당히 강화되자 그는 동구 국가들에게 개혁을 권유하였다. 1987년 4월 고르바초프는 체코를 방문하면서 공개적으로 동구국가들에게 페레스트로이카를 권유하고 각국내의 변화를 바라는 요구를 수용하여 국내문제의 해결을 통해 인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5월에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보다 적설적으로 동구국가들이 소련과 같은 개혁을 실시하도록 제안하였다. 11월에 고르바초프는 10월 혁명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스탈린을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동구의 스탈린체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였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1988년에도 계속되었다. 6월의 당 회의에서 2원적 당대회와 강력한 대통령제를 관철시키고 9월의 정치국원회의에서 자신의 친복 야코블레프(Aleksandr Yakovlev)를 이데올로기 담당에, 그의 비판자인 리카초프를 이데올로기에서 농업 담당으로 바꾸었다. 또한 KGB대장 체브리코프(Viktor Chebrikov)와 그로미코(Andrei Gromyko)를 정치국원에서 은퇴시켰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소련군대 중 50만명, 동구에 있는 5천명의 군인들과 5천대의 탱크를 일방적으로 감소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제 고르바초프는 국제사회가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친명하였다.

동구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정책 추구는 계속되었다. 그는 1988년 봄에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여 각국이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를 보좌하고 있는 소련의 학자와 관리들은 소위 브레즈네프의 제한주권론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동구국가들이 적어도 국내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de Nevers,

1990:19). 그리고 이들은 과거 소련의 대동구 정책이 패권주의였다고 비판하면서 전후에 소련은 동구 각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스탈린식의 사회주의를 보급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소련의 체코 침공, 브레즈네프 선언, 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에 대해 비판하였다. 소련의 이러한 태도에 힘입어 폴란드와 평가리는 개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더욱이 9월에 고르바초프를 보좌하고 있는 시스린(Nikolai Shishlin)은 폴란드의 자유노조를 다시 합법화시키는 것이 소련에게 아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de Nevers, 1990:20).

한편 소련에서는 1989년 3월에 소련에서 일부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당대회에 참석 할 인민대표들을 선출하고 5월과 6월의 첫 회기에서 공개토론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1989년에 들어 소련의 대동구정책은 크게 변하였다. 고르바초프는 평가리의 다당제 채택에 지지를 보내고 폴란드 정부와 자유노조간의 협상, 선거에서 폴란드 공산당의 패배를 인정하고 내정불간섭 정책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6월에 고르바초프는 유럽의회에서 소련의 대동구 불간섭 정책을 확약하였다. 이제 “사회주의 국제주의” 개념의 바탕 위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동맹국에 대해서 소련은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종래의 입장은 완전히 철회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 소련은 8월에 폴란드 공산당 지도자 라코프스키(Mieczyslaw Rakowski)에게 자유노조 중심의 내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다(de Nevers, 1990:22).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10월에 동독을 방문하여 위기에 처한 호네커 정권을 소련군대로 방어하기를 거부하고 인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혁을 해나가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12월에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정권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이제 동구국가 중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영향권 밖에 있는 나라는 알바니아 뿐이다.

VIII. 결 론

이제까지 폴란드 공산당이 패권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과정을 폴란드의 정치문화, 경제적 어려움, 자유노조의 등장, 소련의 대폴란드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폴란드 공산당은 국민의 90%이상이 카톨릭을 믿는 상황에서 무신론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보급해 나가는데 근본적인 어려움

을 안고 있었다. 카톨릭 교회는 폴란드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이 이에 벼금가는 권위를 사회 속에 뿌리 내리기가 매우 곤란했다. 더욱이 폴란드 공산당은 소련이나 중국처럼 진정한 혁명에 의해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한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주어진 체제였기 때문에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치적 신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 공산당은 경제적 성과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농장 집단화,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 계획 경제라는 스탈린식 경제체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56년의 포스난(Poznan)의 노동자 봉기, 1970년의 소요, 1976년 라돔과 우루수스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저항, 1980년과 1988년의 연대노조의 총파업에서 보는 것처럼 폴란드 경제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으나 스탈린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 기존구조내에서 정책수단의 변경만으로 대응해 나왔다. 결국 1989년에는 경제 파탄의 위기를 맞아 공산당의 통치가 붕괴되고 연대노조 주도의 내각이 구성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에 대해 불간섭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이 폴란드에서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오랜 시행착오 끝에 노동자와 반체제 지식인들 간의 동맹으로 나타난 연대노조가 끈질긴 투쟁을 전개한 결과이다.

그럼 폴란드 공산당 통치하의 패권정당체가 무너진 곳에 어떤 형태의 정당체가 나타날 것인가? 이에 대해 아직 뚜렷한 해답을 얻기가 힘들다.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등장한 지 겨우 1년이 지난데 불과하여 아직 정치적 분화와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11월 25일에 폴란드에서는 민주화과정의 일환으로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유경선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간 연대노조운동의 오랜 동지였던 마조비에츠키 현 총리와 바웬사가 대통령직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주로 연대노조 출신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마조비에츠키와 노동자들의 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바웬사중에서 누가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느냐에 따라 폴란드의 정치적 개혁의 내용과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 폴란드 정당정치의 장래에 대해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김황주

1989 “폴란드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폴란드, 등록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와 정책」, 서울 : 법문사, 70-102.

朴虎聲

1990 “동유럽, 그 변혁의 뒤안길,” 「월간 중앙」, 10월호 : 356-391.

서병철

1989 “폴란드의 역사적 형성과 정치구조,” 「폴란드, 등록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와 정책」, 서울 : 법문사, 9-38.

서울대학교 사회주의 연구팀 편

1990 「사회주의 개혁 논쟁」, 서울 : 형성사.

張琪杓

1990 “제야, 운동권이 보는 동구의 변혁 : 인간해방을 향한 새로운 실험,” 「신동아」, 9월호 : 422-433.

Allardt, Erik and Wladzimir Wesolowski

1978 *Social Structure and Change, Finland and Poland: Comparative Perspective*, Warsawa: Polish Scientific Publishers, 1978.

Brzezinski, Zbigniew

1989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er's Sons.

Conner, Walter D.

1988 “Dissent in Eastern Europe: A New Coalition?” *Problems of Communism*, 29/(January-February):1-17.

de Nevers, Renee

1990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the End of an Era,” *Adelphi Papers*. No. 249:1-95.

Fallenbuchl, Zbigniew M.

1982 “Poland's Economic Crisis,” *Problems of Communism* (Mar.-Apr.), vol. 31:1-21.

Frank, Andre Gunder

1990 “Revolution in Eastern Europe: Lessons for Democratic Social Movements (and Socialists?),” *Third World Quarterly*. 12 (April):36-52.

Gebethner, S.T.

1990 “중, 동부 유럽 : 현실사회주의로부터의 후퇴와 그 단계,” 서울대학교 소련, 동구 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10월 29~27일).

Gitelman, Zvi

1988 “The Limits of Organization and Enthusiasm: the Double Failure of the

- Solidarity Movement and the Polish United Workers' Party," in Kay Lawson and Peter H. Merkl, *When Parties Fail: Emerging Alternative Organiz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421-446.
- Gwiazda, Adam
1989 "The Recent Economic Reforms and Policy Changes in Poland," 18 *The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October):1-19.
- Kuklinski, Ryszard
1988 "Documentation, Special Report: Poland in Crisis, 1980~1981," *Orbis*. vol. 32:3-48.
- Lewis, Paul
1983 "Legitimacy and the Polish Communist State," in David Held et al. (eds.) *States and Societi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431-456.
- Sartori, Giovanni
1976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ar, Richard
1989 "Poland: Renewal or Stagnation," *Current History*. (November):373-409.
- Wallerstein, Immanuel
1989 "Marx, Marxism-Leninism, and Socialist Experiences in the Modern World-System," presented for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rxism and the New Global Society," sponsored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Oct. 25-27, 1989, Seoul, Korea.